변혁을 예고하는 대륙의 열풍

학술특집

— '문화열'을 통해본 중국의 현대화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통문화 해석

비판계승론 우수전통 계승과 외래문화 선발수용

현실에 불만품은 신세대 정서 반영 철저재건론

전통사상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외국의 사상조류가 소개되고 다각적인 전망이 모색되는 가운데 이른바 '문화열'(文化熱:문화연구 토론의 붐)이 뜨겁게 전개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문화열'은 단순히 전통에 대한 평가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대안들에 관한 조심스런 모색까지 포함하고 있다.

Ⅰ. 문화연구 붐

중국에서의 문화연구의 붐(boom:熱)은 80년대 초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일어나 8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달했다. '문화열'과정에서 제시된 전통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자면 비판계승론, 유학부흥론, 서체중용(西體中用), 철저재건론 등으로 우선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의 문화논쟁 붐은 1919년 5·4사건을 전후한 '신문화운동'과 적어도 논쟁의 구조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열'을 '신5·4'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문화'란 말은 중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Ⅱ. 전통의 재인식

문화에 관한 토론을 뜨겁게 만든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문화열'의 전개는 일단 '전통'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전통문화 혹은 전통사상에 대한 처리문제는 5·4운동 이래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많은 논란 가운데 풍우란(馮友蘭)은 철학적 명제에 있어서 추상의의와 구체의의를 분별하여 추상의의를 계승할 수 있다는 '추상계승법'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이어 받은 것이 비판계승론이다.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입장은 전통의 유산에서 "찌꺼기는 버리고 알맹이는 흡수한다"고 주장한 모택동의 명제와도 일치된다.

유교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이전에 호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다. 84년에는 산동성에 '공자기금회'가 성립되었으며, 또 같은 해에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외국문화의 소개를 통해 중국문화의 현대화를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중국문화서원'이 설립되었다. 87년에 와서는 전국 '현대신유가 사조'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더우기 근래 경제성장에 우선적 가치를 두면서,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급속한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Ⅱ. 신세대의 비판적 태도

그런데 오히려 전통문화를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철저재건파'라 불리는 청장년층의 신세대들로, 때로는 '반전통파'로 불리기도 하고 '전반서화파'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들은 젊은 층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88년 여름에 방영되어 중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TV다큐멘타리 '황하는 죽었다(河殤)'를 주도한 사람들도 그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최대 과제는 봉건전제주의의 '초안정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라 보며, 따라서 중국봉건사회나 전통문화는 비판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들의 비판은 암암리에 현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가령 주도적 인물의 하나인 김관도(金觀濤)는 전통사상 뿐만 아니라 모택동사상도 신랄히 비판한다. 모택동 사상은 유교화 된 마르크스주의이며, 문혁의 좌익 모험주의는 도덕적 이상주의인 성리학적 의식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적관이성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천안문 사태 이후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이들의 입장은 한발 더 나가면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Ⅳ. 새로운 방법론 모색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법론 혹은 새로운 사상들을 모색하고 있다. 가령 서체중용론의 이택후(李澤厚)는 유기체 모델을 원용하여 공자사상을 설명하고, 오행사상에 시스템 이론을 적용한다. 이를 이어받은 김관도는 거기에 다시 사이버네틱스 등의 시각을 적용하여 대범한 시론들을 제시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북경대 화학과 재학생으로서 '문혁'을 맞은 김관도(金觀濤)는 헤겔과 마르크스 연구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그들 사상의 한계를 발견한 그는 다시 과학쪽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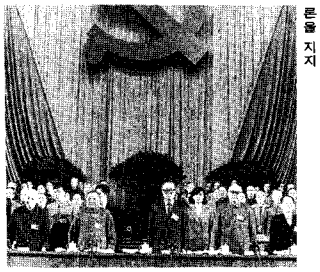
그에 의하면 "변증법 철학이 진정으로 과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헤겔식의 사변을 포기하고 이론 구조에 대한 과학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과학을 이용하여 철학을 개조하고자'한다.

철저재건파의 또 한사람의 기수인 김양(甘陽)은 '반전통(反傳統)'이야말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이 중국인이 아닌 것으로 변할까, 중국문화가 중국문화가 아닌 것으로 변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김관도와 더불어 많은 젊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김양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해석학에 그 학적 바탕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으로 비교적 경직되었던 사상계는 다시 백가쟁명의 상황으로 되고 있다. 특히 70년대부터 수용되어 80년대에 상당히 일반화된 시스템 이론 등의 방법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노삼론(老三論)-시스템이론, 정보이론, 사이버네틱스)과 '신삼론(新三論)'(돌변이론, 무산구조론, 협동학-등 현대과학의 시각들이 자연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도 자주 등장한다.

5·4가 후진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를 도입하게 만들었다면, 신5·4격 '문화열'은 이제 사회주의를 지양하고 또 다른 사회를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5·4신문화운동을 통하여 중국인들이 '과학'과 '민주'를 수용했다면, 작금의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과 서구의 여러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또 한번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수 중
〈문리대 교수·철학〉



◇중국공산당은 전통문화의 비판적 계승론을 지지

다시보는 인간과 쌀의 역사

— 쌀의 기원과 전파

풍부한 농작물바탕 고대문명 태동

인도에서 기원, 각 지역전파 과정속 생태조건에 적응하는 다양한 품종 출현

정부에서 쌀수입개방는의가 진행되는 요즘 우리의 기본식량인 쌀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여 수입개방의 부당성을 알리고자한다.

우선 이번호에 쌀의 기원과 전파를, 다음호에 한국인과 쌀, 쌀과 환경문제를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註〉

Ⅰ. 인간과 농작물

지구가 우주속에 태어난 것은 45억년전, 그리고 20억년간의 침묵이 흐른다음에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인류에게는 먹이가 풍부하였으나 차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계에서 먹이를 얻기가 쉽지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약1만년전(신석기시대)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작물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각종 풀씨를 재배하였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풀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류가 몇천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쌀, 밀, 옥수수, 감자, 카사바, 콩등으로 그 수가 점차 줄어 들어 현재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식량의 약80%를 이들 몇 개 작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작물이란 야생식물 본연의 입장에서 보면 기형식물의 일종이며 그 이용가치는 극대화되어 그동안 인류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왔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고 이용가치가 큰 농작물을 만들어내는데는 온 인류가 동참하였으며 따라서, 농작물이란 인류공유의 위대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농작물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되어오는 과정에서 야생의 특징을 상실하게되어 스스로 자연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공생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우수한 농작물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소맥(밀)을 기반으로하여 성립되었고 수도(水稻:벼)는 인도의 고대문명을, 조와 피 그리고 콩은 중국의 문명을 탄생시켰으며 마야문명은 옥수수라는 우수한 농작물을 창조함으로 발상되었고 감자는 남미 안데스산지역에 잉카문명을 꽃피우게 하였다.

농업이 시작될 당시의 지구인구는 약 5백만명에 불과했으나 농업이 시작되고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을 인류가 만들어 내면서 식량이 풍부하게 되어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을 하기 전에는 인구증가율이 불가 0.002%, 즉 농사를 짓기 이전의 지구에서는 1년에 약1만명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서기원년의 지구상의 전인구는 약 2억5백만명이 되었고 서기 1천6백년에는 약5억으로 늘어났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자연계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먹이사슬의 정상에 도달한 생물은 필멸하게 된다는 생물역사를 생각할 때 근대물질문명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점차 야생의 특성을 잃어 인간의 관리없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Ⅱ. 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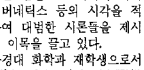
쌀의 발상지는 인도의 북동부에서 중국운남성에 이르는 열대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인도는 물론 동남아시아로부터 한국, 일본, 중국동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중요한 식량작물이다. 광대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재배되어온 벼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논에서 재배하는 벼, 밭에서 재배하는 밭벼, 열대지방에서 1년에 2번씩 재배되는 안남미(long grain rice, Indica type)와 북방계인 short grain rice(Japonica type)를 교배하면 씨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방에서 발상된 벼가 북방의 한국이나 일본에 전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전파과정에서 서서히 그 지역의 온도나 일조량등 생태조건에 적응하기위한 변이가 출현하고 유전자 상호교류가 막힘기때문일 것이다. 북방으로의 전파경로는 중국대륙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자강유역의 하모도(荷姆渡) 유적지에서 발굴된 탄화미는 7천년전(BC5008년)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황하의 문화권의 유적에서는 5천2백년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동강유역, 동경유적이나 한강유역의 흔암리유적에서 발견된 벼가 중국대륙(황하)에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2천여년이 걸린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권 신 한
〈산업대교수·농학〉

금융실명제 실종 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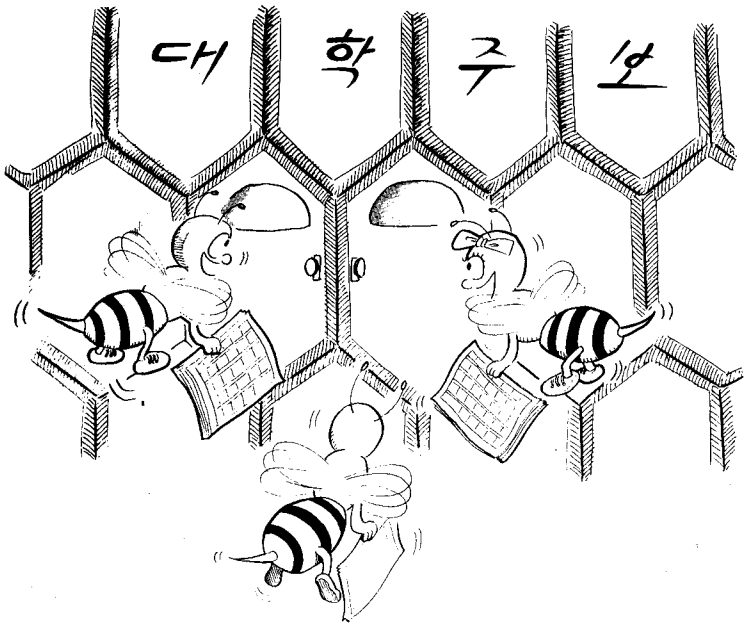


오래 그렇듯 명명하지 못하거나 뒤가 구린 돈에 자기를 관련시키고 싶지 않은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스스로의 명예때문이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양심때문이건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인지는 알수없지만 아마 정정당당한 모습이 아닌데서 출발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이다.

최근의 국회의원·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인·아들 심지어 손자명의로 된 땅에서부터 온갖 투기와 축재에 대해 자기를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애쓴 노력이 역력함을 볼 수 있다. 경우는 모두 다르지만 혼히들 말하는 지하경제와 그 검은 돈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는 경제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또다시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시연기 이유를 첫째, 급상승하는 물가지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대신 행정규제를 각 기업에 유리하게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는 잠시 6공화국시절의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연기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에도 전적으로 추진되던 부제도는 경제상황악화의 경제혼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물론 배후에는 기득권세력의 철저한 견제와 반대가 있었음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에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난에 주범이 망루기와 지하경제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외치는 개혁과 고통분담, 신한국 창조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공개, 군인사, 교육등의 분야에서는 칼질이 가해지고 있지만 경제분야에서만은 개혁의 조짐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가령 조순 전 한국은행총재 사퇴나 실명제연기등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전경련에서조차 금융실명제실시를 찬성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연기하려는 데에는 의혹을 살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볼때는 기업의 숨통을 틔게할지 모르지만 지하경제의 온존과 검은돈의 악순환을 방치할 따름이다.근원적인 해결을 도외시한 방법은 결국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민정부가 이전의 6공화국과 차별성을 부르짖으며 개혁을 외친다면 그리고, 6공의 가장 큰, 실정인 경제망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제개혁에 과감한 칼을 들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은돈을 뿌리뽑을 금융실명제 실시부터임은 두말할나위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렵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곧장 대학주보사로 찾아오십시요.
당신을 반겨맞는 대학주보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 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 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